

물가·경기·PF·부채 '난제'...금리 1년째 동결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0.25% 인상된 이래 '8연속 동결'돼 1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게 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흐름이 끝난 가운데, 최근 태영건설 PF 사태 등 국내 부동산 업계의 불안정성, 국내 물가 둔화 흐름,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단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연간 8번의 기준금리 인상·인하·동결 결정을 하는데,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차례 연속 금리를 묶어둔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출부실 등 대응 위해 낮춰야 하지만 가계부채 등 고려 6개월 내 인하 어려울 듯...시장에선 '이르면 7월' 예상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 부실 대출 등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GDP 성장률을 높이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는 등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불안과 물가 불안정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000억원으로 또 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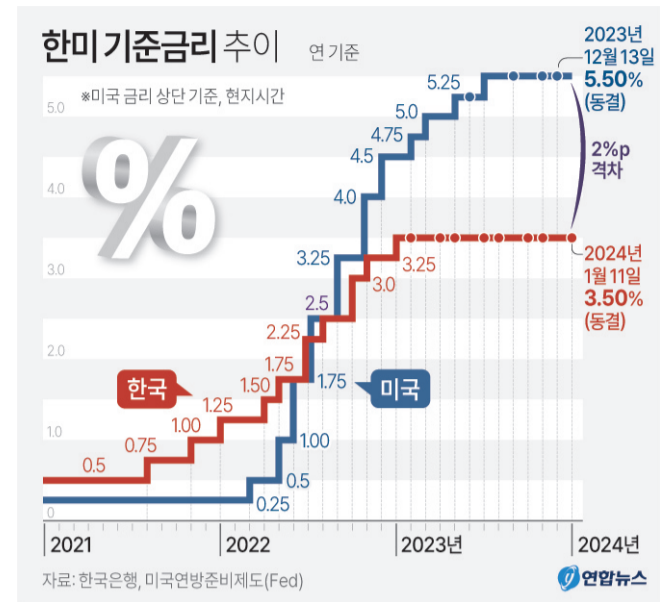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5개월 연속 3%대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한국은행의 고충을 근거로 대다수 전문가도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동결을 점쳤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6개월 내로 금리가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 FED의 금리 결정과 국제 유가 안정, 물가 경로 등이 예상대로 흘러갈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물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해 물가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3·4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당 수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이후, 이르면 7월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파넬(통화정책 전환)과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착, 내수 부진 등을 확인한 뒤여야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미 FED의 통화정책이 전환될 시 이르면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까지 0.5~1.0%p 낮아져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0세 30만원·1세 15만원 올려...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0-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

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생활요금 자동납부 캐시백

6월까지 KJ카드 고객 대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6월까지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24광주은행 KJ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J카드(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이 생활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시 최대 2만50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기간 내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 시 4000원, 추가 납부 고객 3000원 등 최대 7000원 캐시백 제공 ▲한전 전기요금 자동납부 신규 신청 시 3000원, 추가 납부 시 3000원 등 최대 6000원 캐시백 제공 ▲도시가스 자동납부 신규 신청 시 3000원, 추가 납부 시 3000원 등 최대 6000원 캐시백 제공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신규 신청 시 3000원, 추가 납부 시 3000원 등 최대 6000원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과 광주 Wa(와)뱅크 앱, 광주은행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및 카트센터(1577-3650)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KJ카드 이용 시 오는 연말까지 무이자 할부서비스, 자동차 고액구매 리워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KJ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여행·항공업종 결제 시 2-7개월 무



이자 할부 ▲병·의원·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정비·손해보험사 업종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할부 ▲안경·악곡·미용·하나라드·가전·가구업종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J카드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제·관세·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자동차를 구입할 시 일시불 구매 후 선결제는 최대 1.5%, 정기결제 시 최대 1.2%, 체크카드 결제 시 0.8%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다만, 국제 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가산 결제된다.

유동근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MZ' 세대 덕분 웃는다

'마케팅' 등 MZ 선호 브랜드 입점 매출 신장... '보테가베네타' 레드투웨어 12일 오픈

'MZ'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유통업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전남 최초로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마케팅'의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2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은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광주신세계는 새해에도 이들 브

랜드를 대상으로 새해 할인과 프로모션을 선보인 다.

먼저 마케팅과 함께 지난해 10월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마리떼프랑소와저버'는 오는 24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뉴트로(새로운new+복고retro) 소비자를 위한 할인 행사로, 클래식하고 크롭 니트와 하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를 20% 할인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들은 최대 40% 산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본관 7층 편집숍 비커(BEAKER·사진)에서도 오는 2월 29일까지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비커는 '아미', '메종키트네', '오트르' 등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을 선정해 선보이는 편집숍이다.

비커에서는 아미 맨투맨 티셔츠와 메종키트네 셔츠를 30% 할인에 구입할 수 있고, 아미와 메종키트네에서 선보이는 카디건, 집업니트 등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 팀장은 "광주신세계가 광주·전남 최초로 선보인 마케팅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도적으로 유치해 매출 향상과 신규 고객유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프로모션 활성화 및 새로운 브랜드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MZ세대의 니즈에 맞춰 인기 브랜드인 '보테가베네타'의 상품 품목 확대를 위해 오는 12일 본관 2층에 보테가베네타 레드투웨어(Ready To Wear) 스토어를 광주·전남 최초로 오픈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년새 시총 500조 증가...삼성전자 144조 ↑

포스코DX 245→38위·에코프로 103→19위 '경중'

최근 1년간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초 기준 우선주를 제외한 2607개 종목의 시총은 총 2503조원이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1월 초의 2011조원에 비해 492조원(24.5%) 늘어난 수준이다.

시총 '1조원 클럽'에 가입한 종목은 작년 초 228개에서 올해 초 259개로 31개 늘었다.

1년 새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종목은 667개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331조3229억원에서 475조1946억원으로 143조8717억원 증가했다.

2위 SK하이닉스 시총은 같은 기간 55조197억원에서 103조6675억원으로 48조5577억원 불어났다.

또 시총 증가 폭이 큰 종목은 에코프로비엠(18조5920억원 ↑), 포스코홀딩스(18조2673억원 ↑), 기아(14조396억원 ↑), 에코프로(14조2153억원 ↑), 포스코퓨처엠(12조4328억원 ↑), 셀트리온(11조3634억원 ↑) 등이었다.

반면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삼성SDI로 작년 초 41조3962억원에서 올해 초 32조1130억원으로 9조2832억원 줄었다.

시총 순위에서는 16개 종목이 새롭게 100위 안에 입성했다.

지난해 연간 주가 상승률이 1천%를 넘는 포스코DX는 작년 초 245위에서 올해 초 38위로 207계단이나 뛰었다.

1년간 주가가 500% 이상 오른 에코프로 역시 103위에서 19위로 수직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청하·백세주...국산 발효주 소매가 최대 5.8%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의 과세표준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이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 백세주 등 약주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기준 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

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 청하 출고가(1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백화수복 출고가(4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소주 판매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0.27(-1.71)
↑ 코스닥	882.53(+7.07)
↓ 금리(국고채 3년)	3.227(-0.042)
↓ 환율(USD)	1312.90(-7.20)